

출판사 참여 유선방송 어떤 일들 계획하나

교육 및 어린이 프로그램 분야에 4개사 선정... 뉴미디어시대 서막 열어

우여곡절 끝에 오는 95년 본격 실시되는 종합유선방송(CATV)은, 고용인력 창출과 신규 시장 조성, 방송환경 변화와 뉴미디어 혁명이란 장·단기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 첫해에 최소한 6개 대도시의 채널을 40개에 이르게 할 유선방송은, 뉴스·영화·스포츠 등 채널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공중과 방송보다 선명한 화면을 송출할 수 있고, 기술 개발에 의해 시청자와 매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다채널 멀티미디어 시대'를 개막할 획기적인 뉴미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공모처가 선정·발표한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20개사. 시청자는, 경제뉴스를 포함한 보도채널을 비롯, 영화(기본 및 유료) 음악·여성·종교·교통관광 등 모두 11개 분야의 20개 채널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자정 전후까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채널들 가운데 4개 채널이 출판사나 출판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에게 돌아가 출판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활자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출판계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의미와 참가업체가 해당분야의 판도 변화를 주도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유선방송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다.

유관업체 컨소시엄 형성, 노하우 살려

수익성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지만 일본과 비교해 전송망 설치를 국가가 부담하는 우리의 경우, 가입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적 성공도 낙관적인 유선방송에 참여한

출판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나서 출판계 판도변화

등을 예상케 한다. 교육 3사의 경우엔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아동 1사는

전문인력 부족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 제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판사는, 시사영어사·동아출판사·한샘·대교출판. 앞의 3개사는 교육분야에, 그리고 대교출판은 어린이 분야에 각각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돼 1년 남짓 남은 준비기간 동안 스튜디오 설치, 전문인력 채용, 프로그램 제작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시사영어사·대일학원·삼보컴퓨터·서울음반 등 1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래교육(대표 정용호)은, 91년 12월 준비팀을 가동시키고 외국어·컴퓨터 교육의 노하우를 강점으로 앞세워 약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교육 경험이 풍부한 참여학원을 통해 고교학습면에서도 경쟁업체와 겨뤄 승산이 있음을 강조하는 미래교육측은, 오는 10월 1일 창립식을 갖고 94년 8월에 시설을 완비하고, 94년 10월 자체 시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교육의 경우, 외국어 교육에 비중을 두는 한편, 교육기회의 확대제공 차원에서 독학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청소년 교양을 위한 내용을 개발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정철호씨(준비단 연구편성담당)는, "여타 분야와 달리 교육분야는 3개사가 선정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참여사들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 전략을 마련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미래교육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벽지 학교 등지에 비디오 테이프와 교재, 그리고 3, 4백대의 VTR 무료제공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한다고 한다.

남부대일학원에 스튜디오 및 주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미래교육측은, 유선방송에 필요한 특수업체들이 거의 망라된 컨소시엄을 형성했다는 점을 심분 활용해 방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있어서는 3개사가 마찬가지로 학습과 사회교육의 비율을 8:2로 신청했으나, 순서를 바꾸려는 공모처의 요구가 있어 재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중인 미래교육과 달리 단독 출자자로 신청, 선정된 동아출판사(대표 김현식)는, 89년부터 뉴미디어팀을 운영하면서 유선방송 사업에 주력해왔다.

94년 상반기에 스튜디오를 비롯한 모든 시설준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갈 일정표를 짜놓고 있는 동아출판사 뉴미디어 개발팀의 최형순씨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차별화를 위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새로운 구성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인을 위한 외국어·컴퓨터 교육은 물론,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한다.

내년에 회사를 상정해서 3년 후엔 독립법인으로 재출범, 운영하게 될 동아교육채널은 재미있는 교육방송을 만든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일반 학원의 강의 장면을 생중계하는 고리타분한 방법에서 탈피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그래픽 연출과 드라마를 통한 학습 등 학습방법을 다양화시켜 재미를 동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동아는 약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익분기점을 방송 5년만인 99년으로 잡고 있으나, 2003년까지도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방송교재 발간 등 교육용 프로그램 공급에서 얻어진 경험과 50여년의 교육자료 출판 노하우, 그리고 광고 대행사 오리콤과 비디오 사업체 두산상사 등 그룹계열사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할 동아는, MEU·SAGE·NHK소프트웨어·SCOLA·Hachette 등 미국·일본·프랑스의 외국방송사와의 계약을 체결, 프로그램 확보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교육 3사는 프로그램 차별화에 주력

한샘(대표 차중호)이 대주주로 참여한 법인명 한국교육영상도 시사영어사·동아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자격증·취업시험·중고학습

법여성학

윤후정 · 신인령 지음 / 10,000원

성차별의 고정관념이 지배해온 우리 사회구조 속의 법체계 내에 있는 각종 모순된 제도와 관행을 여성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분석하였다. 양성평등의 장애가 되는 법규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함으로써 여성들의 법적 문제의식을 일깨워 준다.

여성의 예속

존 스튜어트 밀 지음 / 김예숙 옮김 / 3,400원

존 스튜어트 밀이 1869년에 쓴 「여성의 예속」과 이 글의 이해를 돕는 웬델 로버트 카 교수와 엘리스 로시 교수의 에세이 두 편을 수록하였다. 남녀 불평등 제도가 야기시키는 악덕과 평등제도의 미덕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논증한 여성해방론의 고전이다.

여성과 이원론

린다 M. 클레논 지음 / 이수자 옮김 / 3,900원

사회학과 여성학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채택, 여성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이원성 극복,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분리의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두 입장을 모두 수용, 보완하여 남녀평등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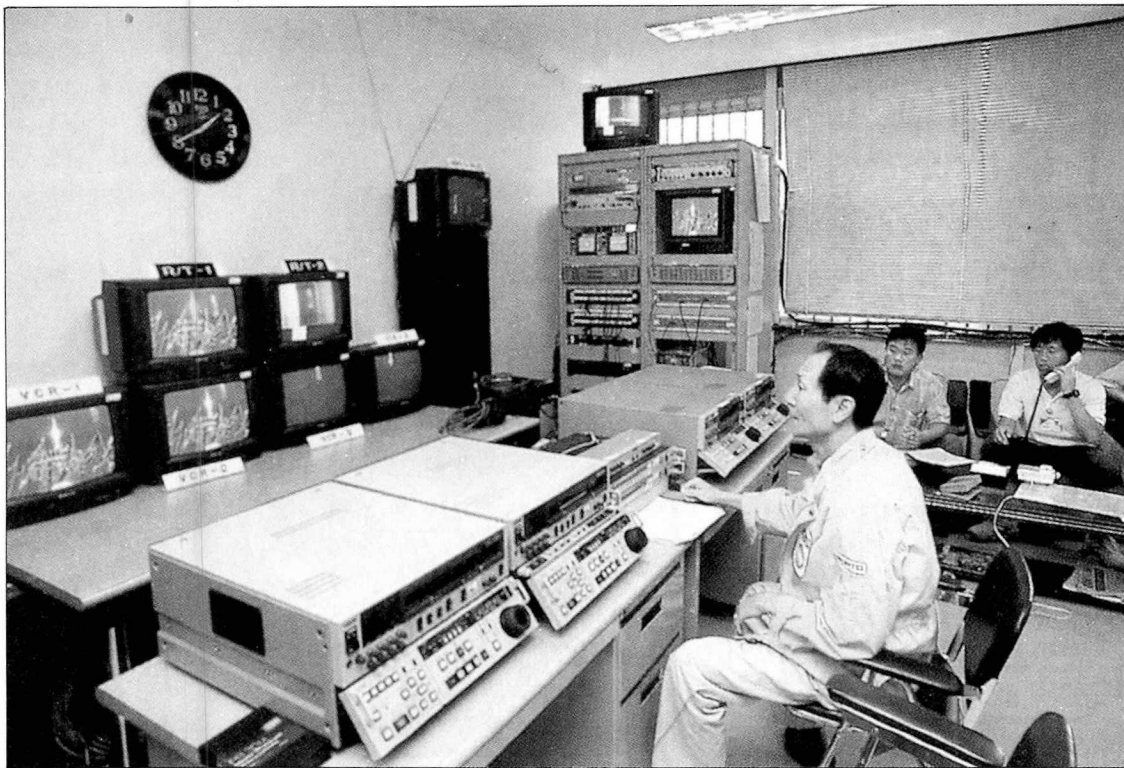
여성노동시장이론

니탈리 J. 스킨로프 지음 / 이효재 옮김 / 5,800원

자본주의 사회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실태와 구조를 밝히는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소개하였다. 지위획득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초기 마르크스주의 가사노동이론, 후기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을 정리하고 노동의 변증법을 제시하였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360-3164, 362-6076, 팩시밀리: 312-4312



95년 실시 예정인 유선방송은 출판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을 주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력과 탐구력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그 첫째는 자연·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것으로 환경교육과 연결할 예정이다. 즉 사례를 통해 제도교육에서 미비된 점을 교육해 훼손되기 전에 자연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영상이 두번째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독서를 통한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인데, 성인들의 독서 가이드도 겸해서 방영할 계획이다. 이 두가지 프로그램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기인 21세기를 겨냥한 것으로, 문화·예술분야를 강조해서 육구를 창출하고 문화소의 계층으로 불리는 노인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도 시간을 할애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번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 신청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분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3개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분야에 비해 독점권을 갖게 된 어린이 분야의 대교방송(대표 강영중)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렵다고 한다. 또한 유선방송의 어린이채널은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비율이 지극히 낮은 편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어린이 TV 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란 기대와 함께 그만큼의 부담이 있다.

대교출판을 비롯한 대교 산하 기업과 애니

메이션 업체인 한신코퍼레이션 등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교방송은, 학습 위주에서 벗어나 건전한 놀이문화와 어린이 중심의 눈높이 정신을 확산한다는 목표 아래 주시청자인 어린이와 부시청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예정이다. 주시청자와 부시청자를 위해 8:2 비율의 편성을 하며, 프로그램의 형식은 오락성을 띠되 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한다는 게 대교방송의 방침. 특히 아이들의 참여를 늘려 단순히 보는 방송이 아닌 동참하는 방송을 유도하겠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 특성상 상업성 보다는 공익성을”

대교방송 기획실 안병우 과장은, “만화방영에 있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만화를 방영한다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한달 제작비가 1백억 이상 소요되는 국내만화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 외국 프로그램 방영 비율을 20%로 제한한 규정을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밝힌다. 동구권의 만화가 비교적 우리의 정서와 맞아 일본만화 일본도를 지양할 한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린이 채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타 분야에 비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는 현실에 있다.

유선방송위원회의 유영옥 부장은 “프로그램 공급체에서 보다 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특히 출판사들이 참여한 4개 채널은 상업성을 도외시할 순 없겠지만, 공익성에 남다르게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미디어 시대의 서막으로 기록될 유선방송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은, 한결같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분야가 교육과 어린이라는 점에서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얘기일 것이다. 사회교육과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맡게 될 4개 방송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디 유선방송 실시를 앞두고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정·오락성 등으로 인한 문화충격을 적어도 출판사들이 참여한 채널에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책의 해에 발표된 유선방송 채널 가운데, 북 채널이 없다는 점이다. 최소한 교육·교양·어린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책에 대한 홍보매체로 삼았으면 한다.

—최태원 기자

소유

올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능가하는 치밀한 구성력과 지적 분위기!



윤 희 기 록

영국 최고 문학상 “부커(Booker)상” 수상작
비토리아 시대의 찬제 시인 랜돌프 애쉬, 그리고 그와 함께 시와 사랑을 나누었던 여류시인 크리스토퍼벤 라모트... 한 쌍의 젊은 학자들이 이 둘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지금껏 문학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 바이어트’는 ‘스탈담’과 ‘조이스’에 비견할 만한 작가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죽었고 그녀는 살아있다는 것 뿐이다
—LA 타임즈 북 리뷰紙—

정가 : 5,500(상하 각권)

얼음꽃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



이용범 정편 추리소설

당신의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소설
죽음과 영혼, 신과 인간과의 교감 등 문화, 정신, 역사를 넘나드는 작가의 해박한 지적 능력과 특유의 추리기법은 독자로 하여금 지적 충만감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값 : 5,000원

광야에서의 사색

역사와 사상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버린 듯한 작가 고은의 자서전적 수필집



“거기서 나는 내 온몸이 온통 감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율이 일어났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1단짜리 작은 기사가 나를 그렇게 사로잡은 것이다. 이제까지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의외의 충격이 나를 슬취한 찌꺼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창계천에서 노동자가 분신했다는 기사였다. 이전 무엇인가, 이전 무엇인가? 그 무렵 나는 전후의 실존주의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이 얼마나 창녀의 아이없는 마음과 똑같은 것인가를 괜히 분개하고 있었다.
[만인의 시, 만인의 진실] 중에서

정가 : 5,000원

동아출판사 ☎861-4818